



블랙아웃 화요일 캠페인에 동참한 하이어뮤직 소속 가수들과 직원들.

국내 힙합계 '블랙아웃 화요일' 동참 지속 "흑인 목숨도 소중"

박재범이 이끄는 하이어뮤직 소속 가수·직원들

해당 캠페인 관련 단체에 2만1000달러 기부

'인종 차별 문제 좋아지기를' 액시즈도 캠페인 동참

최근 미국에서 비무장 흑인이 백인 경찰에 의해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촉발된 미국 음악계의 '블랙아웃화요일'(BLACK OUT TUESDAY) 캠페인에 국내 가요계의 동참이 이어지고 있다.

힙합가수 겸 프로듀서 박재범이 이끄는 힙합 레이블 하이어뮤직(HIGHR MUSIC)은 2일 "하이어뮤직 가수 대다수가 흑인 음악을 사랑하는 만큼 이번 미국에서 발생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위해 '블랙 라이브스 마스터(BLACK LIVES MATTER)'(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이어뮤직은 소속 가수와 직원들은 2만1000달러(약 2500만원)를 모아 해당 캠페인과 관련한 단체에 기부했다. 아울러 블랙아웃화요일 캠페인에도 동참한다. 이번 흑인 사망 사건에 대한 음악산업에서 추모와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목적이다.

하이어뮤직은 "화요일 업무 활동을 멈추는 것으로 흑인 커뮤니티에 대한 지지와 발전된 사회를 위해 음악산업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는 계기를 만들고자 이번 운동에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다.

하이어뮤직은 화요일인 이날 발매가 계획돼 있던 '강 신드롬' 가수 겸 배우 비(정지훈)와 협업곡을 해당 캠페인 지지 의사를 표하기 위해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하이어뮤직은 국내 뮤지션과 미국 시애틀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활약하는 뮤지션들로 구성된 글로벌 힙합 R&B 음악 레이블이다. 박재범과 차차 말론이 지난 2017년 함께 설립했다. 식케이, 그루비톤(규정, 휘민), pH-1, 우디

고차일드, 김하은(HAON), 우기, 골든(Golden), 박나티(사동원), 울트론, AV, 페 레즈 등이 소속됐다.

이와 함께 R&B 보컬 케이터가 소속된 뮤직 레이블 액시즈(AXIS)도 전날 "흑인 음악을 하루 듣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진실로 귀 기울여야 할 것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블랙아웃화요일 캠페인에 동참할 뜻을 밝혔다.

액시즈는 "블랙아웃화요일 운동에 동참함으로써 조금이나마 인종 차별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함께하게 됐다"고 전했다.

앞서 박재범이 개인적으로 흑인 인권 보호 단체에 1만 달러(약 1200만원)를 기부하고, K팝 그룹 '갓세븐' 멤버 마크가 조지 플로이드 메모리얼 펀드에 7000달러(약 860만원)에 전달하는 등 국내 음악계에서 조지 플로이드를 추모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흑인인 플로이드는 지난 25일 미국 미네아폴리스에서 백인 경찰로부터 체포당하는 과정에서 비무장 상태로 목이 짓눌려 숨을 거뒀다. 이후 현지에서는 이 사건을 '인종차별'로 규정, 항의하는 중이다.

유니버설뮤직, 워너뮤직, 소니뮤직 등 3대 세계적 음반사를 비롯 팝스타들이 동참하고 있다. 래퍼 겸 배우 닉 캐논,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협업으로 국내에도 팬 층을 형성한 할시 등은 직접 시위에 동참하고 나섰다. 이번만 아니라 아바존뮤직, 애플뮤직, 라이브네이션 등 다양한 음악 레이블들이 해당 운동의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뉴시스

방탄소년단 슈가, '빌보드200' 11위... 한국술로 최고

비상업적 목적 무료 배포

그룹 '방탄소년단'(BTS) 슈가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200'에서 K팝 솔로 가수 최고 성적을 거뒀다.

1일(현지시간) 빌보드에 따르면 슈가가 개인 활동명 '어거스트 디(August D)'로 공개한 두 번째 믹스테이프 'D-2'가 오는 6일 자 '빌보드200'에서 11위를 차지했다.

이미 슈가는 방탄소년단 멤버들과 함께 해당 차트에서 네 번 정상에 올랐다. 11위는 한국 솔로 가수 앨범으로는 최고 성적이다.

앞서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이 차트에서 계속해서 솔로 가수 최고 순위를 경신해왔다. 2018년 3월 제이홉의 '호프 월드'가 38위, 그해 10월 RM의 '모노'가 26위에 올랐다. 슈가가 팀 내에서 배턴 터치한 한 셈이다.

또 슈가의 이번 앨범은 제이홉, RM의 앞선 솔로 앨범처럼 '믹스테이프'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비상업적 목적으로 무료 배포된 앨범이다. 일부 해외 음악 플랫폼에서는 구매를 해야 하나, 사운드클라우드 등에서 무료로 들을 수 있다. /뉴시스



앞서 'D-2'는 빌보드 차트와 함께 세계 양대 팝차트로 통하는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 톱 100에서 7위를 기록, 역시 이 차트에서 한국 솔로 가수 최고 기록을 세웠다. 타이틀곡 '내 취미'는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0'에서 68위를 차지했다. /뉴시스

'버터왕자' 류지광, 진짜 모습은?

EBS, 3일 '극한직업 트로트 가수' 방송

트로트 유망주를 발굴해내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비주류 장르였던 트로트가 그야말로 대세 장르로 등극했다.

EBS는 3일 가나인 무명가수 시절을 지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트로트 가수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극한 직업 - 어디든 간다! 트로트 가수'를 방송한다.

동굴 저음으로 지칭 '36년 백수'에서 화제의 트로트 귀공자로 스타덤에 오른 버터왕자 류지광은 전 연립대를 아우르며 아이돌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그가 이렇게 빛을 보기까지 그 과정은 결코 녹록치 않았다. 어려운 가정환경에 부모님을 호강시켜드리겠다는 다짐 하나로 극한의 트로트계로 뛰어든 류지광. 라디오, 팬미팅, 뮤직비디오를 총횡무진하며 그야말로 트로트의 전성기이자 인생의 전성기를 맞았다.

하지만 100년이 넘는 트로트 역사 동안 번



번한 홍보 창구나 별도의 데뷔무대도 없었던 기존 가수들의 무대는 어떨까.

20년 무명 시절을 지난 34년차 트로트 가수 이병철은 지금의 트로트 열풍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젊은 신인 트로트 가수의 등장으로 설 자리가 없어 불안하기만 하다.

이병철은 식당, 산악회, 라이브카페 등 어

디든 불려만 준다면 마다하지 않고 찾아간다. 길에서 옷을 갈아입는 건 기본, 운전도 셀프, 홍보도 셀프, 화장도 셀프다. 셀프 홍보를 위해 직접 발로 현장을 뛰기도 한다.

100년의 굴곡 뒤에 주류로 부상한 트로트 가수들의 무대 뒤 진짜 모습을 들여다본다. 3일 오후 10시40분 방송. /뉴시스

김영병 의심되면 '1339'로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²,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